정교분리·평화운동 실천이 가치 높인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창립 학술세미나, 사회 정의와 불교의 역할 조명


정의평화불교연대가 학술대회를 열고 활동방향을 점검했다.

"불교적 토대 위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우리는 불교가 지니는 중도적 균형감각을 바탕에 두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새롭게 창립한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는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참여해 각각 정의 평화 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대승불교 사상과 사회참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박병기 교수는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문화 지향 ▷자신의 업(業)에 책임지는 불교적 책임윤리 확보 ▷공업(共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가적 공화주의 확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문화는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나 스스로의 삶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일을 의미한다. '업(業)'에 책임지는 불교적 책임윤리는 연기성에 기반을 둔 자세로 사회정의 해소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승가적 공화주의는 산중회의와 같은 승가의 전통에서 유추된 개념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구성원들의 중도적 자세를 바탕으로 공업의 결과와 그 결과로서의 방안 모두를 포괄 할 수 있게 된다.

박병기 교수는 "제도와 관행, 문화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뒤따르면 각각의 단위 공동체 안에서 시작돼 시민사회와 국가, 지구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 정의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밝혔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의 평화사상을 행위와 구조의 연기체적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유 교수는 불교의 평화사상이 행위와 구조가 연기체적 관계를 지녔고, 수행을 통해 자비, 인욕, 삼독의 제거를 체화하는 것에서부터 평화운동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참여방법이라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생명위기 시대의 불교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우 교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나온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비폭력을 강조하는 불교는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곧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또 "연기법은 상호관계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자신의 안팎으로 단절되거나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비폭력이자 수행이며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다"고 밝혔다.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불교공동체에 집중했다. 이 교수는 특히 눈부처 공동체를 강조하며 타인을 사랑하고 공존하려는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다. 눈부처는 타인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눈부처의 상생은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너지며 그 사이에 내재하는 권력과 갈등,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서서히 힘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성찰이 없으면 자기변명일 뿐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



"시민들이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데 종단과 불교시민단체들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 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도 위태로워지고 불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 중생도 살리고, 불교도 살리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사진)은 정의평화불교연대가 대안적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종단과 불교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진보적 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실천을 하겠다며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에는 이은봉 작가회의 사무총장과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산파 역할을 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도흠 사무총장은 "인도 불교가 쇠퇴한 것은 사회적 실천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불교도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사회적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과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나 종단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는 불교라면 사회를 향해 자비심을 베풀라고 말을 하고, 자비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스님과 재가자 모두 사회과학에 무관심 합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 싱크탱크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불교를 현대에 맞게 해석 하고,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도흠 사무총장은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정의평화불교연대가 말이 아닌 실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실천 속에서 사업을 하고 대중회원도 늘려갈 것이다. 그러나 1년 동안은 대중적 회원 모집 없이 발기인 중심으로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 불교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성찰만이 불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찰이 없으면 자기 변명으로 끝난다.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싹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다."

박기범 기자

사랑의 교회 의혹 "끝까지 밝힌다"

종교자유정책硏, 감사청구 추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초구 사랑의 교회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감사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초구민들이 서울시에 서초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서울시민들은 국토해양부에 서울시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감사원 감사와 달리 만일의 경우 법원을 통한 행정심판 요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미 2007년 동대문 구청과 소송까지 벌이며 지하점유허가를 요청한 A교회에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특혜 감사청구가 법원까지 갈 경우 법원은 2007년과 유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는 "감사 청구를 위한 서울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서 대표는 인도 부다가야에서 10월 26~29일 열린 세계참여불교네트워크(INEB) 국제컨퍼런스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인권과 종교 자유를 위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기범 기자

본지는 깨끗한 · 아름다운 사찰환경을 위해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와 '디자인 템플(Design Temple)' 코너를 연재합니다. 본 코너는 사찰 환경의 잘된 모델과 잘못된 예를 들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찰환경의 변화를 유도코자 기획됐습니다. 사찰 환경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컨설팅을 바라는 사찰의 많은 제보와 응모를 기다립니다.

사진 등 자료 보내실 곳: cetana@gmail.com 조동섭 기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합니다.)

특별기획 | 디자인 템플(Design Temple)

사찰환경에 디자인을 더 하자

사찰의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된다. 최근에 이 시대 사찰환경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다.

신도수가 늘어나고 사찰이 담당해야 될 기능이 예전과 다른데 과거의 환경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트랜드를 읽지 못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 온 전통적인 사찰환경을 훼손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사찰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덧붙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통사찰에서 필요한 기능을 덧붙일 때 나타나는 환경훼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해져 내려오는 사찰 원형에 부정적 변화를 주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혹은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사찰에 도입된 다양한 경관요소에 적용돼온 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공간의 확장은 전통사찰의 환경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전통사찰은 잘 짜인 구조체이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경역내의 건물과 건물, 건물과 마당이 매우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적 구조를 가진 사찰의 배치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건물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높이와 크기가 달라지면 경관적 측면에서 전통성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늘어나는 주차용량을 수용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사찰을 품고 있던 자연생태계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시각적으로 불량한 경관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공간이나 주차공간은 전통성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과 거리를 이격하거나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공간확장을 위해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찰환경요소를 현대적 개념에 맞도록 디자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사찰이 가진 경관성과 동떨어진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터무니없이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전통사찰의 격에 맞으면서도 현대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품위 있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대도심사찰의 경우에는 전통사찰과는 달리 건축디자인이나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요소의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사찰이 유지해온 경관적 상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디자인은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의 중요성이 숨어있다.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사찰환경도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불자들이 요구하는 사찰환경은 지난날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어온 사찰환경은 오늘날의 불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사찰환경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는 유지하면서 드러난 형식을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이 시대 사찰환경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없이 사찰환경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